화재예방 위해 불시소방조사 늘린다

시설중심서 이용자 중심으로 화재안전제도 마련
공사장 화기취급 강화…전기안전 취약시설 점검

정부가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소방청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개혁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현재 6층 이상 건물에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금지된다. 필로티 구조와 위험 건축물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도 고려해 개선한다.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은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거동 불편자가 많아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또 화재원인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저비용 보강공법의 개발,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재 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부리핑에서 "비상구 폐쇄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의 원칙 확립과 실현을 위해 화재안전제도 개혁을 추진한다"며 "분야별, 시기별로 과제를 세분화해 단계적·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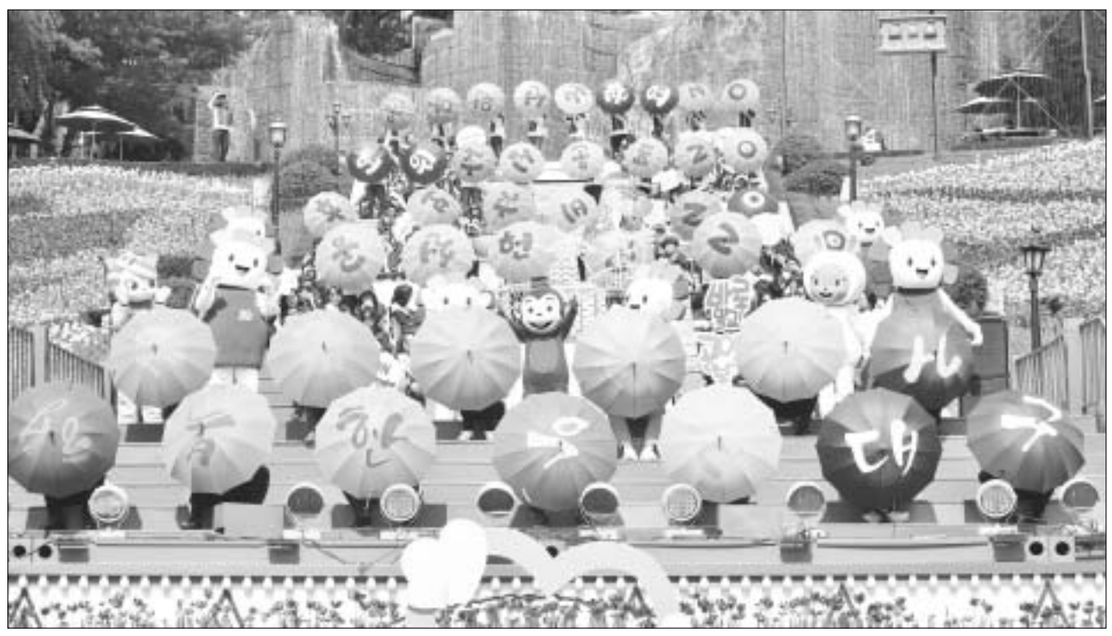
예방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시 대처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한다.

전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의 확대해 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월초 청와대 정책실장(실장 장하성)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TF팀'(TF팀)을 구성했다.

뉴시스



공명선거 기원하는 우산 퍼포먼스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에서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와 지원단 250여 명이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구제역·AI 차단' 전남도,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33명 현장 배치

전남도는 2018년 제12기 신규 공중방역수의사 33명에 대해 가축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고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구제역 및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첫 시행됐다.

신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복무 기간은 3년이다.

전남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지난해까지 46명이었으며 올해는 15명을 추가 확보해 61명으로 늘었다.

순수하게 늘어난 15명은 지자체 현장 가축방역관 부족에 따른 방역업무 추진 애로 등을 감안해 시군에 배치했다.

이들은 지자체 수의직공무원 부족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의 가축방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의 위생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축방역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H 예비후보 '기부행위 위반' 조사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H 예비후보가 모 단체가 연 출판기념회에서 5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기부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H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김승옥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에게 행사때 들어온 지원비 등 관련 내용을 회계를 담당한이가 수입과 지출을 공지 하면서 알려지게됐다.

과연 H 예비 후보가 지원한 50만원이 '기부행위제한'에 의한 '선거법위반'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선거법위반 의혹'을 무사히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순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 내용이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해당된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신안 해상 어선 충돌 냉동운반선 선장 구속

신안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냉동운반선 60대 선장이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탄자니아 선적의 498t급 냉동운반선 싱유에(Xing Yue)호 선장 김모(64)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37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9.6㎞ 해상서 신안 임자선적 15t급 근해자망 어선 2007연흥호와 충돌한 혐의다.

선장 김씨는 해경에서 "관제구역을 벗어난 줄 알고 채널을 바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이 늦었으며, 당시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연흥호에 타고 있던 선원 장모(63)·강모(53)·이모(51)씨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선장 김모(38)씨와 선원 김모(49)·고모(38)씨는 실종된 상태다.

해경은 실종된 3명에 대한 수색을 오는 2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며, 현재 경비함정 6척 행정선 2척, 드론 2대를 띄워 사고 해역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개 2마리 쇠몽둥이로 때린 애견센터 운영자 입건

제주에서 개 2마리를 쇠몽둥이로 때리려다 주변인에게 발각돼 도주했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혐의로 애견센터 운영자 이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제주시 용강동 제주도 동물보호센터 바로 옆에서 개 2마리를 쇠몽둥이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물보호센터 봉사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개를 데리고 도주했으나 차량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씨는 제주시내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씨가 도주 과정에서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견 가운데 1마리는 지난 15일 제주시 월평동 영주고등학교 근처에서 발견됐다.

피해견은 입가에 덥수룩하게 난 털이 아름다워 애견인의 사랑을 받는 슈나이저 종으로 발견 당시 머리와 안구 부위에 큰 부상을 입고 탈수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는 현재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상가 화장실 변기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충북 청주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이나 사산아 출생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17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7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오락실 건물 1층 화장실 수세식 변기에 신생아가 숨져 있는 것을 건물주 A(6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손님들이 이틀 전부터 변기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 변기를 뜯어보니 신생아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숨진 신생아는 임신 5개월가량 된 여자 아이로 몸에 탯줄을 감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누군가 아이를 출산한 뒤 화장실에 유기했거나, 사산아를 출산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돈 빼앗은 일당 구속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다시 뺏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달 7~12일까지 보이스피싱 국내 인출책 정모(20)씨 등 3명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520만원을 뺏은 혐의다.

김씨는 정씨의 보이스피싱조직이 대포통장·카드를 모집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제공하겠다고 속인 뒤 인출장소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이후 이들은 정씨가 인출한 돈을 가로챘고 중국 총책의 인출지시를 기다렸다가 추가로 돈을 뺏기 위해 정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 등에게서 돈을 빼앗긴 정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